

‘소년’의 발견과 전시되는 ‘국민-되기’의 서사

김희경*

초록 이 글은 해방기 염상섭 문학을 보다 폭넓게 살펴보려는 목표 아래 최근 새롭게 발굴된 염상섭의 『채석장의 소년』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이 작품은 아동문학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염상섭의 다른 작품들과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단정 수립 이후 남한 사회에 조성된 반공주의의 흐름 속에서 국민보도연맹 결성을 통한 전향의 강제라는 사회문화적 측면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염상섭은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며 남북협상을 지지하는 입장에 섰고, 통일된 민족국가 수립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1948년 8월 15일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되고, 이승만 정권은 반공주의를 수단으로 삼아 남한 사회의 ‘우익이 아닌’ 정치이념과 사상들을 반국가적(혹은 반민족적)이라 규정하며 자신의 체제를 공고히 한다. 법제도적 차원에서의 국가보안법의 제정(1948), 이념·사상 차원에서의 반공주의의 강화, 사회문화적 차원에서의 국민보도연맹의 결성(1949) 등을 통해 이승만 정권은 남한 사회의 ‘불온한 세력들’(중도파·좌익)을 강제적으로 포섭하고 전향시키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중도파, 좌익)문화인들이 보도연맹에 가입했고 염상섭 역시 보도연맹 가입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난날의 과거를 청산했음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염상섭이 기존과 같은 소설 문법을 통한 소설 쓰기를 선택하는 것 대신 아동문학의 알레고리 형식을 선택한 것은 견고한 반공권력의 감시 아래 자신의 글쓰기를 이어 나가기 위한 방편이라 판단할 수 있다. 『채석장의 소년』의 표면에서 발화되고 있는 전제민 소년의 ‘국민-되기’의 서사와 여기에 수반되는 ‘협력과 연대에 기반한 공동체의 통합’이란 주제는 아동문학의 알레고리적 장치를 통해 효과적으로 ‘전시’될 수 있게 된다.

주제어 국민보도연맹, 전향, 국민, 자기증명, 강박, 알레고리, 위장적 서사

1. 들어가며

최근 엽상섭 작품연보에서 확인되지 못했던 혹은 서지사항으로만 확인되었던 엽상섭의 작품들이 발견됨에 따라 해방 이후 엽상섭 문학에 대한 새로운 논의 지점들이 마련되어가고 있다. 『무풍대』,¹ 『채석장의 소년』 등의 작품이 새롭게 발굴된 작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연구자들의 논의는 최근 들어 본격적으로 제출되고 있다. 『채석장의 소년』은 아동잡지인 《소학생》에 1950년 1월부터 연재되다가 전쟁으로 중단되었고 1952년에 평범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된 작품으로,² 엽상섭 작품 가운데 처음으로 발견된 ‘아동문학’이라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채석장의 소년』을 최초로 발굴한 김재용³은 이 소설이 냉전적 반공주의의 극단의 시대에 대한 작가의식을 ‘아동문학’이라는 형식을 통해 드러내는 점을 강조한다. 그의 연구는 “이데올로기적 곤혹스러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엽상섭이 ‘소년소설’을 창작했을 것이라 전제하며, 해방 이후 새롭게 요청되는 민족적 통합이라는 과제가 민주주의와의 결합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작가적 인식을 살핀다. 엽상섭의 아동문학 창작이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우회적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논의의 시각은 이후 제출되는 연구들로 이어지며 생산적인 논의를 위한 토대가 마련된다. 공중

1 『무풍대』는 『효풍』의 연재가 완결된 다음 해 『호남신문』에 1949년 7월 1일부터 9월 25일 까지 연재된 장편소설이다. 처음으로 이 작품의 존재를 확인한 안서현은 “『무풍대』는 단정 수립 이후의 엽상섭의 문학적 행보라는, 그동안 작가론의 공백으로 남았던 부분을 해명할 수 있는 실마리를 담고 있는 문체적 텍스트로서 풍부한 자료적 가치를 갖는” 작품이라 평가하고 있다. 『무풍대』 분석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안서현(2013), 「『曉風』이 불지 않는 곳: 엽상섭의 『無風帶』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39, 한국현대문학회, pp. 157-183 참조.

2 김재용(2015a), 「냉전적 반공주의 하에서의 민족적 통합 및 민주주의에 열망: 새로 발굴된 『채석장의 소년』을 중심으로」, 『채석장의 소년』, 글누림, p. 177.

3 김재용(2015a), pp. 175-195; 김재용(2015b), 「해방 직후 엽상섭과 민주 재현의 정치학」, 『한민족문화연구』 50, 한민족문화학회, pp. 69-92.

구⁴의 연구는 『채석장의 소년』을 해방공간에서의 “시대적인 과제와 민족적인 전망에 대한 염상섭의 진단과 해법을 투사하는 알레고리적 축도”로 볼 수 있다고 간주한다. 새롭게 마련된 해방공간에서 해결해야 할 시대적, 민족적 과제와 관련하여 염상섭은 이 소설을 통해 “무조건적인 환대와 공동체적 부조의 윤리에 기초한 협력과 연대” 및 “민주주의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이란 가치를 제시하고 있음을 밝힌다. 정호웅⁵의 경우 해방 이후 ‘소년’이 중심에 놓인 작품들을 종합하여 ‘소년의 행로’를 살펴보는 가운데 『채석장의 소년』을 다룬다. 이 시기 ‘소년’이 해방 이후의 “사회,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의 새 나라 건설의 과제와 관련된 구성소”였다면, 『채석장의 소년』 속 ‘소년(들)’은 보편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강조되는 가치들을 매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박성태⁶의 연구는 단정 수립 이후 ‘분단의 고착화와 반공주의의 강화’라는 상황에서 염상섭 문학의 정치성이 전개되는 양상을 살펴보며 ‘민족통합과 친일과 청산’이라는 문제를 소설화하는 점에 주목한다. 이념적 대립을 넘어서는 민족통합의 상상력이란 문제의식은 단정 수립 이후 축소되어 『채석장의 소년』에 이르면 부르주아와 전제민의 사이의 계급적 통합으로 굴절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채석장의 소년』이 한국전쟁 발발 전 염상섭의 민족통합의 주제의식이 나타나는 마지막 작품이라는 점을 밝힌다.

살펴보았듯 『채석장의 소년』이 비교적 최근 발굴된 자료라는 점에서 이제 막 본격적인 연구성과들이 제출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염상섭이 당시의 정치적 상황 아래에서 아동문학이라는 우회적 방식을 선택했고, 이를 통해 민족통합의 전망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 면밀하게 검토되

4 공중구(2017), 「염상섭의 『채석장의 소년』론」, 『현대소설연구』 65, 한국현대소설학회, pp. 129-154.

5 정호웅(2019), 「해방 후 소설과 ‘소년의 행로’」, 『구보학보』 22, 구보학회, pp. 507-533.

6 박성태(2021), 「단정 수립 이후 염상섭 문학의 중도적 정치성 연구(1948~1950): 민족통합과 친일과 청산 문제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83, 한국현대소설학회, pp. 312-340.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아동문학의 형식을 취한다는 점으로 말미암아 해방기 염상섭 연구의 흐름 속에서 다소 소외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기존의 염상섭 소설에 비해 단순한 서사 구성, 교훈적·계몽적 주제의식 등은 이 작품이 단독연구의 대상으로 다뤄지는 데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본고는 『채석장의 소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도연맹 가입 및 ‘전향’의 문제와 마주하고 있던 작가 염상섭의 글쓰기를 더욱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고 판단한다. 『채석장의 소년』은 소년들의 우정과 연대에 기반한 (민족)공동체적 통합의 이야기와 함께 전제된 소년의 ‘국민’이라는 경계 내부로의 통합 욕망을 서사화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특징을 단정 수립 이후 반공권력 아래에서 강제된 전향의 문제와 관련하여 살펴봄으로써 본고는 공동체적 통합의 문제가 작품 내에서 ‘이중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주목하고, 이로부터 노출되는 통합에의 강박이란 측면을 조명해보고자 한다.⁷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작품 내에 그러한 판단을 가능케 하는 부분이 어떤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작업이 보충되어야 한다고 보아, 면밀하게 텍스트를 분석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해방기’라고 통칭되는 해방기부터 한국전쟁 직전까지의 기간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해방-남한단독정부 수립-한국전쟁 발발로 이어지는 역사적 사건 속에서 특히 정부 수립을 전후한 시점부터 한국전쟁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논의는 ‘해방’과 ‘전쟁’이라는, 상대적으로 거대한 역사적 사건에 가려져 대체로 단순화되어 처리

7 『채석장의 소년』에서 발견되는 ‘통합’에의 강박이라는 주제는 비슷한 시기 발표되는 『난류』(『조선일보』, 1950. 2. 10.~6. 28)에서도 발견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김영경(2016)의 연구를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작품 속 남녀 혼담과 회사 합병 문제를 통해 단정 수립 이후 남한 사회의 ‘통합’에의 강박과 이데올로기에 관해 고찰하는 그의 연구는, 『난류』와 비슷한 시기에 연재된 『채석장의 소년』을 분석하는 본고의 논의에 유의미한 시각을 제공했음을 밝힌다.[김영경(2016), 「단정 이후 염상섭의 정치의식과 미완의 서사」, 『현대소설연구』 64, 한국현대소설학회, pp. 175-203 참조].

된 경향이 있다. 하지만 최근 제출되고 있는 연구자들의 논점과 같이, 단정 수립을 전후한 시기부터 한국전쟁 전까지의 기간에 주목하여 해방기에 관한 논의를 좀 더 세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⁸ 특히 단정 수립 전까지 그토록 확고했던 중도파로서의 염상섭의 정치의식이 단정 수립 이후 좌절되어 어떤 식으로든 ‘굴절되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표출되는지, 이에 관한 작가의식은 무엇일지에 관한 질문이 덧붙여져야 한다.⁹

염상섭은 남북협상을 지지하며 통일된 정부 수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108인 문화인 성명’과 ‘문화언론인 330명 선언’ 등에 참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신민일보 관련 필화사건을 겪기도 한다.¹⁰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1948년 8월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되었고 이승만 정권은 체제 유지 및 권력 장악을 위해 반공주의를 더욱 공고히 한다. 이런 상황에서 좌익분자의 “포섭·전향·보도” 및 이를 통한 좌익세력의 “색출·섬멸”이라는 목표 아래 1949년 6월 ‘국민보도연맹’(國民保導聯盟)이 결성되며, 한국전쟁 발발 전까지 30여만 명에 달하는 가맹원이 보도연맹에 가입하게 된다.¹¹ 이러한 대대적인 전향 국면 속에서 많은 문화인들이 보도연맹에

8 김영경 역시 ‘해방기’로 통칭되는 5년 남짓한 기간을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봐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난류』에 나타난 ‘통합’에의 강박을 ‘단정기’ 남한 사회의 ‘국가-만들기’ 논리에 내포된 감압적 ‘통합’ 이데올로기의 문제와 관련지어 설명한다[김영경(2016), pp. 176-179].

9 다만 이러한 논의는 해방기 염상섭의 행적이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과 연관지어 재고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작가 스스로도 해방기 행적을 언급하는 것에 소극적이었던 것과는 관련되는 부분이다.

10 이종호의 정리에 따르면 염상섭은 1948년 4월 28일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포고’ 제2호 위반으로 체포되었다가 5월 1일 미군정재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5월 3일 군정장관의 명령으로 조건부 집행유예로 석방된다. 『신민일보』 주필이었던 염상섭의 체포는 “남한만의 단독선거에 반대하는 언론활동에 대한 미군정의 탄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종호(2019), 「해방기 염상섭과 『경향신문』」, 『구보학보』 21, 구보학회, p. 412 참조.

11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4월 21일 창설되어 같은 해 6월 5일에 명동 시공관에서 결성식

가입하였고 염상섭 역시 이를 피할 수 없게 된다.¹² 이와 관련하여 문화인들의 전향에 관한 이봉범¹³의 논의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는 국민보도연맹 결성에서 한국전쟁 전까지의 사상사적, 문화사적 특수공간을 ‘전향공간’으로 규정한 뒤, 전향이라는 문제가 이 시기 ‘문화전반의 지형이 재구축되는 과정에 있어 중추적 매개’로서 작동하는 점을 살핀다. 이를 통해 전향이 권력과 사상 측면(반공국민 만들기의 틀 속에서 ‘사상·신념의 교체’ 및 ‘남한체제에의 동화’를 강제) 및 문화적 측면(문화주체의 변용 및 문화 장 전반의 구조변동 규율하는 기제) 양측 모두에 관계된 것이었음을 짚어내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하여 본다면, 『채석장의 소년』은 상당히 흥미로운 위치에 서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가난한 전제민 소년 완식과 부르주아 소년 규상(과 친구들)의 우정과 연대를 통해 민족통합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작품으로 읽힐 수 있다. 그러나 작품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이 작품은 좌우합작파(단선반대파) ‘였던’ 작가 염상섭의 자기 위치에 대한 문제의식과 관련된 흔적을 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도연맹 가입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1950년 1월에 작품 연재를 시작하는 점

을 개최하며 공식화된다[강성현(2004), 「전향에서 감시·동원, 그리고 학살로: 국민보도연맹 조직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14, 역사학연구소, p. 61].

- 12 염상섭의 보도연맹 가입 시기와 관련해 안서현(2013)은 1949년 6월 염상섭이 보도연맹에 가입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문화인들의 보도연맹 가입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1949년 ‘남로당원 자수 주간’(1949년 10/25~31, 2차 연장 11/1~7, 3차 연장 11/8~30)의 2차 연장 기간 중 현재 서울에서만 3천여 명이 자진 가맹했고, 11월 4일 시인 정지용이 가입했다는 보도가 발견된다[‘남로당원 자수 주간인 4일 오전 10시에 국민보도연맹에 자진가맹을 해왔다는바, 동기는 문학가동맹을 탈퇴한 후 심경의 변화로서 온 것이라 한다. 문인으로서 자진가맹해 온 것은 정씨가 처음으로 가맹의 감상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시인 정지용씨도 가맹 전향지변-심경의 변화」, 『동아일보』, 1949. 11. 5)]. 당시 문인으로서 정지용이 ‘최초로 자진가맹’을 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염상섭의 보도연맹 가입은 최소한 정지용의 가입이 이뤄진 11월 4일 이후 이루어졌다고 판단해볼 수 있을 듯하다.
- 13 이봉범(2008), 「근대지식으로서의 사회주의와 그 문화, 문화적 표상: 단정수립 후 전향(轉向)의 문화사적 연구」, 『大東文化研究』 64,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pp. 215-254.

과 관련하여, 이 소설은 염상섭의 작가적 경험과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된다. 특히나 그 소설이 염상섭 평생에 써보지 않았던 아동소설이라는 형식을 빌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작가가 무언가 ‘다르게’,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 말하고자 하는 바와 연결될 것이라는 점이 본고의 문제의식의 출발점이다. 『채석장의 소년』은 기존 염상섭 소설이 다뤄왔던 소설적 문법으로부터 벗어나 정치적 현실의 문제보다는 일상의 윤리와 같은 주제를 ‘의도적으로’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작품 내부에서 발견되는 텍스트의 균열과 모순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문제인가? 그것은 염상섭을 둘러싼 이중의 구속, 즉 전향 증명에의 압박과 작가로서의 자의식 사이에서 고뇌했던 작가 염상섭의 고뇌와 고투의 흔적이 아닐까?

이와 같은 질문으로부터 출발하여 본고는 『채석장의 소년』이라는 염상섭 문학 전반에 있어 돌출적인 작품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일차적으로는 작품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수행하고 작품 자체에 관해 다채로운 논의 지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을 통해 염상섭 스스로도 분명하게 말하지 못했던 이 시기 자신의 행적과 내면 풍경에 관한 실마리를 찾고, 해방 이후 염상섭 문학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시각을 도출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2. 단정 수립 ‘직후’의 시간 불러오기

『채석장의 소년』은 아동잡지 『소학생』에 1950년 1월부터 연재되던 중 한국전쟁으로 중단되었다가 이후 한국전쟁기인 1952년 단행본으로 출간된다. 이와 관련해 정호웅은 소설에 전쟁과 관련된 내용 및 무거운 분위기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으로 인해 이 소설이 “연재시작 때, 아니면 늦어도 전쟁 시작 전에 이미 완성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다.^{14, 15}

작품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과 관련하여, 『채석장의 소년』은 해방기(해방공간)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작품이 발표된 시기 및 앞서 발표된 염상섭 소설들과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소설이 ‘단정 수립 이후’의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짚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텍스트 바깥의 정보를 통해 도출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좀 더 구체적인 작품 분석을 통해 이 소설의 시간적 배경에 대한 논의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여겨진다.¹⁶ 다만 소설 속에서 시간적 배경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들이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는 특징으로 인해 이 소설의 시간적 배경을 확정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작품 내에서 과편적으로나마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주인공 완식이 자기 가족들이 방공호에 살게 된 내력에 대해 소개하는 장면이다.

남산 옆의 예전에는 서울서도 손꼽던 일본 요릿집을 전제민에게 개방하

14 정호웅(2019), p. 524.

15 염상섭이 『채석장의 소년』을 집필하게 된 이유나 배경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작품의 정확한 집필 동기를 밝히기는 쉽지 않다. 다만, 1947년의 글에서 염상섭은 산비탈 움집에 살며 채석장에서 돌을 패어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간다는 한 전제민에 대해 말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꺾끗이 버티며 살아가는 그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내용을 적고 있다. 그런 점에서 염상섭은 이를 모델로 하여 ‘채석장에서 일하는 전제민 소년’ 완식이라는 인물을 그려낸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수 있을 듯하다 [염상섭, 『가을의 소리』, 『중앙신문』 1947. 9. 14; 한기형·이혜령(2014), 『염상섭 문장 전집 3』, 소명출판, pp. 45-48].

16 『채석장의 소년』의 시간적 배경을 판단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은 이 작품이 해방기(해방공간)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짚고 있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해방기의 어느 시점을 다루고 있는지의 문제는 세밀하게 분석되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본고는 우선 이 소설이 해방기의 어느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단정 수립 이후 1950년’이라는 텍스트 외부의 시간은 텍스트 내부의 시간과 어떻게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게 되어 삼조방 한 간을 얻어 들었던 것이나마, 별안간 불이 나자, 세 식구가 엄동에 알몸뚱이로 겨우 이부자리 한 채를 건져 가지고 쫓겨나서 거리에 앉게 되니, 여기에 이런 방공굴이 있는 줄이나 알고, 설마 이런 데에 신세를 질 줄이야 꿈에나 생각하였으라마는, 지금도 요 위 굴속에 사는 안서방이 어떻게 수소문해서 알았는지 당장 발견해 가지고 와서,

“완식이네두 같이 가십시다. 삼동만 꼭 참고 나면, 차차 또 도리가 나서 겠죠. 첫째 세전 굶으니 좋구, 나가라 들어오너라는 말 없어 좋구…….”

하며 권하는 바람에, 당장 거리에 앉았는 것보다는 나오니 쫓아왔던 것이지마는, (강조 - 인용자, p. 65¹⁷)

완식 가족이 전재민에게 개방된 ‘적산요정’ 방 한 간을 얻을 수 있던 것은 당시 미군정 치하에서 시행된 주거정책과 관련된다. 1946년 10월 현재를 기준으로 해방된 서울로 약 23만의 유입인구가 발생하였고,¹⁸ 이런 상황에서 남한 사회단체들은 적산가옥을 공평하게 배분함으로써 주택문제를 “민족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을 마련하길 촉구하였으나, 미온적으로 대처한 미군정의 정책 아래 적산가옥은 모리배들에 의해 부정처분되는 등의 문제를 겪는다.¹⁹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린 미군정은 1946년 주택대책을 수립하지만 급격한 물가 폭등으로 인해 주택 3만호를 건설하겠

17 염상섭(1950), 『채석장의 소년』, 평범사; 『채석장의 소년』(2015), 글누림, p. 65. 이후 작품을 인용할 경우에는 인용 면수만 표기하도록 한다.

18 이연식의 정리에 따르면 해방 후 서울로 유입된 전재민은 약 23만여 명에 달하고, 이 중 약 1만 세대는 마땅히 거주할 곳이 없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집계된다. 해방 후 남한의 대표적인 귀환자·월남인·세궁민 원호단체였던 ‘전재동포원호회 중앙본부’ 추계에 따르면 1946년 10월 현재 남한으로 유입된 인구는 약 268만 명이고 그 가운데 서울 유입인구는 23만 5,200여 명이다. 그중 집 없는 요주택자는 전국적으로 약 10만 세대, 서울에는 약 1만 세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난다[이연식(2013), 「해방 직후 서울 소재 ‘적산요정’ 개방운동의 원인과 전개과정」, 『鄉土서울』 84, 서울역사편찬원, p. 213 참조].

19 남찬섭(2021), 「해방 후 주택문제와 ‘적산요정’ 개방운동」, 『월간 한국노총』 571, 한국노총조합총연맹, p. 38.

다는 계획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거주택 건설에 대한 계획 역시 비용 문제로 인하여 진행되지 못했다.²⁰ 그런 가운데 미군정에서 장충동과 대흥동에 설치한 전재민수용소도 수용인원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대다수의 전재민은 거주할 곳을 얻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서 겨울을 맞이한 전재민들의 동사, 아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자 과거 일본인 소유의 적산(敵産)을 개방할 것을 촉구하는 사회적 요청이 거세진다. 이에 1946년 미군정은 전재민 주택문제를 해결하고자 총무로, 명동, 회현동 일대의 적산요정을 개방하여 전재민 2,460명을 입주시키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고자 한다. 하지만 적산요정 주인들의 반대로 주택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자, 미군정은 적산요정 개방을 연기했다 이듬해 1월 1차 적산요정 개방을 시행한다. 그러나 이는 '13개 적산요정에 전재민 2,460명 수용'이라는 본래 계획²¹에서 대폭 축소되어 '7개 요정에 전재민 778명 수용'으로 이뤄졌다. 곧이어 2차 적산요정 개방이 추진되었지만 여전히 적산요정 주인들의 반대가 심해 1947년 3월이 되어서야 4개 요정 및 서룡사(瑞龍寺), 이견여관(二見旅館) 등을 개방하여 772명의 전재민 수용이 이뤄진다.²²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면, 소설 속 완식 가족이 적산요정에 방을 얻어 들어가게 된 것은 1947년 초에 실시된 1, 2차 개방정책 중 어느 때로 추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별안간 발생한 '화재'사건²³

20 미군정은 1946년 2월 주택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4월에 2천만 원의 예산으로 주택 3만 호를 건설하고자 계획하지만, 급등하는 물가로 인해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게 된다[남찬섭(2021), p. 38].

21 미군정은 본래 26채의 적산요정에 전재민 수용을 계획하고, 이를 3차에 나눠 시행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가운데 1차로 남산동 일대에 있는 13채의 요정을 개방하여 12월 23일부터 전재민 수용을 시작하고자 하였다(「적산 요정 개방고」, 『동아일보』, 1946. 12. 12; 「요정에 전재민 수용」, 『경향신문』, 1946. 12. 21).

22 적산요정 2차 개방은 1947년 3월 25일 이뤄졌는데, 4개 적산요정에 70세대 408명이 수용되었고, 서울역전 이견여관에 15세대 246명, 원효로 서룡사에 20세대 118명이 수용되었다. 관련 내용은 「전재민수용소 수용에 요정 4개처 개방」, 『경향신문』, 1947. 3. 27 참조.

23 1947~8년 당시 기사에 따르면 화재사건이 빈번히 발생했는데, 화재의 원인 대부분은 적

으로 인해 완식 가족은 삼동 겨울에 거리로 쫓겨나게 되었다고 설명되었으니, 그것은 아마 1947년 말부터 1948년 초 사이의 동절기에 해당될 것이다. 또한 이로부터 약 반년의 시간이 흐른²⁴ 작중 현재 시간은 ‘처서가 지난’ 어느 시점이라고 서술되었으니 이는 1948년 8월의 초가을쯤에 해당될 것이다.^{25,26} 그렇다면 이는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을 이제 막 지난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 판단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작가는 왜 1948년 단정 수립 ‘직후’의 시간을 소설의 시간적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일까? 소설 밖의 시간, 즉 작가 염상섭의 시간은 1950년 초의 어느 때라면, 이러한 시간적 낙차가 설정된 데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것이라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1948년 8월 15일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된 이후 이승만 정권은 반공이테올로기를 강조해나가며 정치권력을 공고히 해나가는데, 법제도적 차원에서 국가보안법(1948. 12)의 제정, 이념·사상 차원에서의 ‘반공주의’ 강화, 사회문화적 차원에서의 ‘일민주의’(一民主義)와 ‘국민보도연맹’(國民保導聯盟, 1949)의 결성 등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승만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토대로

산가옥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 한다. 2층 적산가옥에 온돌을 설치하는 중에 불이 났거나 전제민들이 적산가옥을 제 재산처럼 돌보지 않아 화재가 난 사건이 기사화된다(「화재 건의 8월이 적산」, 『조선일보』, 1947. 11. 30; 「화재의 원인은 전기온돌이 태반」, 『동아일보』, 1947. 12. 9).

- 24 “그러나 오학년 들어서는 한참 공부가 새우고 경쟁이 심해졌는데, 지난 학기 시험도 못 보고, 방학은 끼었었다 하더라도 두 달 너머를 빠져서 공부가 밀리고 보니……그리고 보니 한 달에 이천 원 씩 다섯 달만 모으면 되겠다는 큰 결심을 하고 어머니를 따라나선 데가 채석장이었다. 그러나 삼월부터 나서서 벌써 처음 작정한 다섯 달이 넘고 반년이 되건 마는 먹고 살아야 하니 겨우 모은 돈이라고는 오천 원밖에 안 된다 한다.”(p. 66)
- 25 “처서도 지났으니 노염도 마지막 고비다. 제법 선들한 가을바람이 가벼이 후르르 끼치면, 땀에 뻘 사쓰가 등에 처끈하고 붙는 것이 시원은 하나, 폭양 밑에서 일에 빠친 완식은 몸이 하도 고달파서, 얼굴에서부터 전신에 비지땀을 흘리면서도, 그 찬 기운이 도리어 뼈에 저리게 스미어 싫다.”(p. 9)
- 26 당시 신문을 통해 1948년 처서의 날짜가 8월 23일이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작 23일은 처서이다. 아침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익어가는 가을의 열매를 어루만져주거니 섬돌 아래 귀뜨라미 노래 더욱 처량하다.”(「어제 처서」, 『동아일보』, 1948. 8. 24)

‘우익이 아닌’ 모든 반정부적 세력(중도파, 좌익) 및 사회단체들을 반민족적이라 규정하여 탄압했는데, 문제는 이러한 국가보안법이 처음부터 “‘국가보안’보다는 ‘정권보안’을 위해 악용”됨에 따라 반공권력이 “국가보안법을 수단으로 예외상태를 상례화하고 자신을 절대선으로 신화화하면서 대한민국을 반공국가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²⁷ 다만 국가보안법 만으로는 자발적 전향을 이끌어내고 전향자들을 관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자 공권력 내부에서 좌익세력의 전향을 담당할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에 따라 국민보도연맹이 결성된다.²⁸ 이에 국민보도연맹의 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보도연맹강령²⁹

- 1, 오등은 대한민국 정부를 절대지지 육성을 기함
- 1, 오등은 북한 괴뢰정부를 절대반대 타도를 기함
- 1, 오등은 인류의 자유와 민족성을 무시하는 공산주의 사상을 배격 분쇄를 기함
- 1, 오등은 이론무장을 강화하여 남북노당의 멸족과괴 정책을 폭로 분쇄를 기함

27 박정선(2020), 「반공국가의 폭력과 ‘좌익작가’의 전향」, 『現代文學理論研究』 83, 현대문학이론학회, p. 149.

28 다만 보도연맹은 합법적 정부기관이 아닌 “검사, 판사, 경찰 위주로 구성된 최고위원회가 관리나 운영의 전권을 행사한 관변단체”였는데, 전향자가 실무를 담당하게 하여 표면상 전향자단체처럼 포장했다는 사실을 눈여겨 볼 수 있다[박정선(2020), p. 150].

29 국민보도연맹은 좌익의 ‘사상’에 맞서 사상적으로 투쟁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데, 창설 관련 취의서에 따르면 “전문적 연구를 적극적으로 하여 과학성에 입각한 조리정연한 이론으로 전향 탈당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까지도 언론으로 기관지 등으로 일대 국민운동으로 일으켜 민족정신을 고도로 양양시키는 동시에 광범위한 의식대중의 조직을 통하여 상대방을 압도할 것이요 남북노당 노선이 멸족적인 사실에 비추어 과거 과오를 범한 동포들에게 체계 있는 이론으로 설복하여 대한국민으로서 멸사봉공의 정신함양에 적극 노력하여 멸족당인 남북노당 계열의 근멸을 기하”고자 한다고 밝힌다(「사상전향에 박차-국민보도연맹을 결성」, 『동아일보』, 1949. 4. 23).

1, 오등은 민족진영 각 정당 사회단체와는 보조를 일치하여 한력 집결을 기함

인용된 강령의 내용을 통해 보도연맹은 사실상 이승만 정권의 대국민 사상통제 목적으로 ‘반공 국민 만들기’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기구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³⁰ 단정 수립 이전 “원칙적으로 통일, 방법론적으로 합작을 주장하며 단선 반대와 남북협상 지지 입장”에서 있었던 염상섭은 ‘108인 문화인 연서 남북회담지지 성명’(1948. 4)에 참가하였고, 신민일보 관련 ‘필화사건’을 겪은 뒤에도 “통일독립과 자주독립, 양군 철퇴를 주장”하는 330명의 지식인·문화인의 성명서 〈조국의 위기를 천명함〉(1948. 7)에 연대 서명을 하며, “북한 측 정부 수립을 앞두고 남조선 인민대표자대회(1948. 8. 21~25)에 참가할 남조선 대의원을 뽑는 지하선거에도 참여”했다.³¹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1948년 남한단독정부가 수립되며 분단 상황의 고착화와 극우반공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도파의 활동은 힘을 잃게 된다.³² ‘중간파, 중도파’로 호명되었던 염상섭 역시 이 흐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 보도연맹에 가입하게 된 것이라 판단된다.

30 강성현은 보도연맹의 결성 이후 약 1년 동안 대량 전향이 발생한 현상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과도한 확대 적용의 문제를 지적한다. 국가보안법은 좌익과 무관한 이들에게까지 ‘빨갱이’ 혐의를 씌운 뒤, 사안이 경미하거나 전향가능성이 보일 경우 선고를 유예하거나 가벼운 형량을 언도하고, 석방 후 모두 보도연맹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조직을 확대한다. 그런 점에서 보도연맹은 “명목상 전향자 단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좌익사상과 무관한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가입될 수밖에, 아니 가입이 강제되었던 정체불명의 단체”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강성현(2004), pp. 61-66 참조.

31 안서현(2013), p. 162.

32 『조선일보』는 「중간파의 갈길」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민족진영의 총본영”으로서의 대한민국 정부가 존재하는 이상 ‘중간파’란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민족주의자라면 대한민국을 지지하고 계급주의자라면 인공국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통해 중간파들의 자기비판을 촉구한다(「중간파의 갈길」, 『조선일보』, 1949. 12. 21).

국민보도연맹 문화실에 소속된 뒤 염상섭의 활동에 관해서는 1950년 1월 8일부터 3일간 보도연맹 주최로 개최된 ‘제1회 국민예술제전’에서 1월 10일 강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³³ 이 행사는 “문화실 소속의 각계 문화인이 총궐기하여 새로운 희망에 불타는 각오를 피력하는 동시에 각자천부의 재능과 역량을 경주(傾注)하여 대한민국문화 예술 건설에 적극매진하려는 의도하에 개최”³⁴되었다. ‘소위 좌익예술인’들이 자신의 “과오를 청산하고 잊어버린 예술과 오로지 민국을 위한 그들의 앞으로의 행동을 약속하는 의미”³⁵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 행사를 통해 전향 문화인들의 자기증명이 대대적으로 선언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염상섭 역시 전향증명이 강제되는 상황으로부터 쉽게 자유로울 수 없었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폭압적 시대현실로부터 벗어날 수도, 그렇다고 작가로서의 자의식과 소설 쓰기의 길을 포기할 수도 없던 염상섭은 결국 어떠한 방식으로든 선택을 해야만 한다. 이때 염상섭이 선택한 것은 아동문학의 형식을 빌려 1948년 단정 수립 직후라는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1948년 단정 수립의 시간은 전향자들에게 ‘소거되어 있는’(혹은 ‘누락된’) 과거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제 ‘국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스스로의 위치를 재정립하는 모습을 증명해야만 하는 이들에게 1948년 8월의 시간은 반드시 다시 연결되어야 하는(되찾아야 하는) ‘강요된 기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둘 때, 염상섭이 『채석장의 소년』을 통해 의도적으로 1948년 단정 수립 직후의 시간을 서사 내적 시간으로 설정하고, 소년들의 우정과 연대를 통해 새로운 민족구성원으로서의 편입 가능성을 이야기한 것은 이러한 전향과 자기증명에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

33 국민예술제전은 시공관(市公館)에서 1월 8일부터 10일까지 이어졌고, 8일 강연자로는 김기림, 정갑, 송지영, 9일 강연자는 홍효민, 인정식 박태원, 10일 강연자는 염상섭, 전원배, 최진태 등의 문화인들이 참여할 것이라 소개되고 있다(「국민예술제전 보편 주최로 시공관서」, 『동아일보』, 1950. 1. 4).

34 「오늘 보도연맹 국민예술제전」, 『경향신문』, 1950. 1. 8.

35 「민족애에 감격」, 『경향신문』, 1950. 1. 10.

던 작가의식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배제/포섭의 감각과 ‘국민-되기’의 욕망

김재용이 지적했듯 『채석장의 소년』의 특징 중 하나는 ‘만주국’에 대한 기억을 소환하는 것이다.³⁶ 완식 가족은 해방 이전까지 만주국에서 생활했으며, 해방을 맞아 삼팔선을 넘어 남한으로 오게 된 전제민이라 소개된다.

규상이는 완식이가 혼자 앉았는 것을 버리고 가기가 안 되었기에, 좀 더 앉아서, 만주 이야기, 해방하였을 때의 이야기, 삼팔선을 넘어올 때의 이야기를 한참 듣다가,

“그래, 너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시냐?”하고 물으니까

“우리 아버지? ……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설마 우리가 이 지경이겠니?”하고 완식이는 풀 없는 얼굴빛이 된다. 규상이도 어머니 생각이 나서 더 이상 물어보고 싶지 않았다.

“그래 만주서 아버지도 안 계신데 뭘 하구 있었니? 얼른 나오지 않구?”

“우리 어머니가 국민학교 선생이셨는데, 전쟁 때 우리나라에 나와두 별 수 없으니까 그대로 있었지……”

…(중략)… 그러나 어린 마음에도 아무려면 학교 선생을 다닌 이가 돌을 깨는 막별이를 하더란 말인가? 하는 의분이 치밀어 올라서,

“그럼 왜 너 어머니가 선생 노릇을 다시 안 하시구, 이런 데서 이렇게 됐

36 김재용은 이 작품 속 만주국을 “자신과 현실을 되비추어보는 거울”이라 설명하며, 염상섭이 ‘거울’로서 만주국을 불러온 이유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기 어려운 상황과 연관된다고 지적한다. 이때 만주에서의 삶과 현재의 삶은 전혀 연결되지 않는데, 이는 민족분단의 현실에서 민족통합의 희망을 보여주기 위해 불러온 것이기 때문이라 설명한다 [김재용(2015b), pp. 81-86].

단 말이나?”

하고 핀잔을 주었다.

“하지만 서울 와선 별안간 아는 사람이라곤 피난민뿐이요, 고향엔 가기가 창피스럽다하시구……. 그러는 동안에 불난리를 만났으니, 이제는 빨간 몸뚱아리만 남아서 어딜 가실 수두 없구…….”

하고 완식이는 말을 끊다가,

“우리 어머니두 인젠 늙으셨기두 하지만, 애, 한글이니 사회생활이니 어렵더라. 우리 어머니는 그걸 모르시거든, 일본 것은 잘하시두, 우리나라 건 모두 새운 판으로 배우셔야 할 텐데, 그걸 배우실 새가 있어야지 않니, 되레 어머니를 가르쳐 드린단다.” (pp. 85-87)

완식의 아버지는 해방 이전 만주에서 사망한 것으로 암시되고 있으며, 어머니는 만주에서 국민학교 선생으로 일했으며 일본어에 능숙하다는 점이 소개되어 있다.^{37,38} 완식은 과거 만주시절에 대해 규상에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완식이 자신의 만주에서의 과거에 대해 이중적 감정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노출된다. 우선 완식은 자기 가족의 과거사를 밝히며 어떠한 거리낌이나 별다른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듯한 모습이다. 만주에서 돌아왔다는 것, 어머니가 만주에서 국민학교 교원 활동을 했었다는 사실 모두 그

37 만주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오는 완식 가족의 귀환 과정은 작가 염상섭의 행적과도 비슷하다. 염상섭은 1936년 만주행을 결정하였고 1945년 만주에서 해방 소식을 듣게 된다. 이에 만주 생활을 정리하고 만주 안동-신의주-사리원을 거쳐 마침내 서울에 도착하고, 돈암동 295의 3호에 자리 잡는다. 해방공간 서울에 이르고 나서야 염상섭은 그동안의 ‘작가적 고차 상태’를 벗어나 다시금 작가로서의 생활을 이어나간다. 해방 후 염상섭의 공적 활동에의 복귀에 관해서는 김윤식(1987), 『염상섭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pp. 765-776 참조.

38 완식 가족이 겪었던 주택(주거)문제는 서울 도착 이후 주택문제에 직면했던 작가의 전기적 경험과도 관련 있을 듯하다. 염상섭은 “해방 이후에 집 같은 집은 지너보지 못하고 이날 이따까지 채광이 고약한 침침한 방 속에서” 보냈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염상섭, 「노안을 썼고」, 『경향신문』, 1946. 12. 12).

저 일상적인 과거의 행적 정도로 처리되고 있을 뿐이다. 그것은 (무)의식적으로 만주에서의 생활을 과거로 치환시키는 것이자 더 나아가 만주에서의 삶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절대적 과거로 설정되는 지점이다.³⁹ 그러면서도 완식에게서는 ‘식민의 경험’과 관련된 것들이 하루빨리 “우리나라 것”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조급함 역시 감지되고 있다. 만주국의 ‘2등 시민’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유용한 수단으로 기능했던 식민제국의 언어 일본어는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도구로 전락해버렸다. 이제 ‘한글’이 해방 조선의 국어, 우리나라 말이라는 지위를 되찾게 되고 일본과 관련된 일체의 것들은 ‘타자’의 것이 된다. 완식은 한글을 포함한 일체의 ‘우리나라 것’들을 어서 습득해야 할 필요성을 밝히는데, 여기서 내집단으로서의 ‘우리(나라)’를 향한 완식의 귀속욕망이 발견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새롭게 건설된 남한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이 되고자 갈망하는 완식에게 가족공동체는 더 이상 그의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점을 눈여겨볼 수 있다. 앞선 시기 작품들에서 발견되었던 염상섭 특유의 ‘가족’의 감각이 소거되고, 그 자리에 국가공동체의 ‘국민-되기’의 욕망과 포섭/배제에 대한 감각이 들어서게 된다. 완식에게 있어 해방 전 사망한 아버지는 물리적으로나 심정적으로나 부재하는 존재로 간주된다. 어머니의 경우, 새롭게 만들어지는 ‘민족국가’의 일원으로 아직 ‘부적합한’ 상태라는 점이 부각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완식에게 있어 현재의 가장 큰 목표는 학교에 복학하여 “나라를 위해 일하”게 되는, 다시 말해 ‘국가-만들기’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그

39 이러한 태도는 작가 자신의 만주 생활의 기억과 연관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1930년대 중반 만주로 이주한 뒤 행적을 살펴보면, 진학문의 권유로 『만선일보』의 편집장직을 맡아 근무했고, 1939년 『만선일보』를 그만둔 뒤 신경에서 안동으로 이주하여 해방 직전까지 대동항 건설사업 선전부에서 근무했다고 전해진다. 이 외 만주에서의 염상섭의 행보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김윤식(1987), pp. 612-622; 김승민(2007), 「해방 직후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만주 체험의 의미」, 『한국근대문학연구』 8, 한국근대문학회, p. 244 참조.

일원으로 공고히 인정받는 것이다.

완식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포섭/배제의 감각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학교 복학에 대한 강한 열망이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완식은 ‘남산국민학교’⁴⁰에서 5년급까지 공부했지만 갑작스러운 화재로 인해 방공호로 옮겨오며 학교를 그만두게 된다. 이런 완식에게 있어 학교를 그만둔 현 상황은 국가의 규율시스템으로부터의 낙오이자, 국민이라는 범주로부터 소외된 문제적 상태로 받아들여진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둘 때, 완식의 이와 같은 학교 입학 열망은 국민이라는 경계로의 편입 욕망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완식에게 어머니는 완식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구성원이 되도록 적절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오히려 완식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다시 ‘습득시켜야 하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완식은 자신의 어머니가 아직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고 사회생활에도 능숙하지 못하여 “우리나라 건 모두 새로운 판으로 배우셔야” 하는 점에 대해 걱정한다. 사회에서 온전한 국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되레 어머니를 가르쳐 드리”는 완식의 모습에서 부모-자식 역할의 역전이 일어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체제 내의 일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을 품고 있는 완식은 국민의 경계 내부에 공고히(결격사유 없이) 자리 잡은 ‘국민’으로서의 어머니를 결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완식에게서 나타나는 학교 복학에의 열망은 작가 자신이 처한 증명에

40 실제 1945년 11월 개교했던 남산국민학교의 당시 학생 대부분은 전제민 아들이었다는 점에서, 만주 귀환 전제민이었던 완식이 학교에서 5년급까지 공부할 수 있었다는 설정이 설득력을 얻게 된다. 관련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같은 날 오후 기자는 남산국민학교를 방문하니 때마침 분탄배급이 나와서 김종현 교장 이하 교원 수명이 지휘를 하여 남녀생도 수백명이 ‘리레-’ 식으로 석탄을 운반하고 있는데, …(중략)… 연료난으로 현재 삼천여 명의 생도를 오전 오후 2부 수업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전제민인 관계로 시당국의 보조와 후원회의 진력으로 겨우 운영해갑니다.”(강조 - 인용자, 「어떻게 살아가랴? ③ 학교편」, 『경향신문』, 1947. 11. 29).

의 압박과도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다. 염상섭이 단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아동문학 형식을 통해 주인공을 소년으로 내세운 것은, 새로운 시작에의 의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소년의 성장 가능성 등을 완식이라는 인물에게 투영하려는 작업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완식이 마침내 입학할 허가를 받는 것은 ‘국민-되기’라는 일종의 입사의식을 통과하여 자신의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받는 모습이기도 하다. 소설 말미 완식이 “교표 없는 모자”를 벗은 뒤 “노란 교표”를 붙여 자랑스럽게 ‘다시 쓰는’ 것은 그가 국민학교로 상징되는 국민의 경계 내부로 무사히 편입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소설에는 또 다른 입사의식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완식 어머니 역시 남한 사회의 ‘부적합한 국민’이라는 위치에서 벗어나 그 존재를 인정받게 되는 장면이다. 그동안 ‘결여된’ 상태로 존재했던 완식 어머니는 이를 통해 완식의 존경받는 어머니이자 민족구성원으로 재정립될 수 있게 된다. 영길 아버지와 규상 아버지의 설득 끝에 완식 어머니는 규상 새어머니의 해산을 돕기로 한다. 여기서 ‘출산’으로 상징되는 ‘새출발’의 행위에 완식 어머니가 도움을 보태고 훌륭한 성품을 가졌다는 점, 그리고 과거 숙명여학교 출신이었다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완식 어머니는 비로소 인정받게 되는 과정을 거친다. 그것은 마치 염상섭의 ‘해방 1주년 기념작’ 「해방의 아들」(1946, 원제 「첫걸음」)에서의 이중의 출산, 즉 홍규 부인의 ‘아들 출산’과 홍규가 마쓰노-준식을 조준식으로 새롭게 갱생시키는 ‘탈식민적 의미의 출산’이 겹쳐지며 새 출발을 준비하는 장면과 비슷하다.⁴¹

41 류진희(2009), 「염상섭의 「해방의 아들」과 해방기 민족서사의 켜디」, 『상허학보』 27, 상허학회, pp. 161-162.

4. 두 개의 서사 시간과 균열에서 목격되는 소년의 ‘강박’

『채석장의 소년』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소설의 중심 서사는 완식의 학교 입학(복학) 문제이며, 규상과 친구들의 가난한 친구 돕기와 연대에 관한 이야기가 소설의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한다. 이 과정에서 규상이란 인물은 작품 구성과 관련하여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한다.⁴²

규상이 반장으로 있는 학급에서 이틀간 밥을 먹지 못한 창규가 점심시간에 졸도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창규 가족의 어려운 사정을 들은 규상과 친구들은 십시일반 쌀과 돈을 모아 창규를 돕는다. 이 과정에서 당시 남한 사회의 식량문제의 심각성이 노출되는데, 요사이 쌀 한 말이 “이천백 원”이나 한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쌀 한 말에 이천백 원이라는 정

42 소설에서 규상은 일종의 동정자형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동정자란 『사랑과 죄』(1927~1928)의 이해춘, 『삼대』(1931)의 조덕기와 같은 인물들의 모습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일반적으로 염상섭 소설의 ‘동정자(심퍼사이저)’는 사상과 이념의 문제와 결부되어 사용되었던 개념으로, 사회주의적 전망에 대한 동정과 이에 대한 원조의 측면이 부각된다. 이러한 모습은 일제 식민지배의 상황 속 심퍼사이저를 통한 저항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논의로 확장된다. 그런데 해방이 되며 남북 분단과 냉전체제, 남한사회의 반공주의 강화와 같은 상황에서 더 이상 주의(자)와 부르주아의 관계는 과거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채석장의 소년』 속 규상을 동정자로 규정하는 것은 『삼대』의 덕기와 같은 것이 아니며, 전제된 소년을 향한 부르주아 소년의 연민과 동정 그 자체를 뜻하게 된다. 여기에는 사상과 이념의 문제가 소거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사상과 이념이 부재한 그 자리에 ‘윤리, 도덕’의 문제가 들어서게 되고, 과거 동정자(부르주아)/주의자 사이에 형성된 관계는 동정자(부르주아)/빈자 사이의 관계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된다.

선행연구들은 이 작품이 부르주아와 무산계급의 통합과 연대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러한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있어 무조건적인 확대와 호의의 태도가 요청된다고 설명한다. 다만 이러한 관계로 재편되어 나감에 따라 부르주아/무산자(전제민) 이들의 균형 있는 관계형성 대신 무산자를 향한 동정자의 일방적인 호혜(호의)만이 존재하게 된다는 점에서 궁극적 의미에서의 계급통합과 연대의 가능성이 마련될 수 있는지는 섬세하게 고려해봐야 할 지점이라 여겨진다.

보는 이 소설이 연재되던 1950년 초 남한의 시장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해방기 미군정의 미곡정책 실패로 인해 남한 사회의 식량 수급은 항상 불안정했고, 이러한 문제는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고도 제대로 해소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남한 사회의 쌀값은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하며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냈다. 1948년 단정 수립을 전후한 시점의 쌀값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면, 폭우로 인한 열차의 지연과 양곡 배급의 감소로 인하여 8월 초 서울 시내의 쌀값은 소두(小斗) 한 말 기준 천칠백 원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⁴³ 폭등했던 쌀값은 수급 안정 및 배급 증가로 인하여 점차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이후에는 오히려 쌀값이 폭락하여 같은 해 11월에는 서울 시내 쌀값이 칠백 원대까지 떨어졌다고 확인된다.⁴⁴ 1949년에 접어들어서도 쌀값은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하며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1949년 말에 이르러 다시금 쌀값이 오르기 시작하여 1950년 1월 서울 시내 쌀값이 이천 원대에 육박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⁴⁵ 이에 과감한 식량 대책을 촉구하는 요구가 빗발치자 이승만 정부는 악질 모리배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정부보유미 방출 등의 정책을 통해 쌀값 안정을 꾀한다. 이에 급등하던 쌀값은 일정 정도 안정세로 접어들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결국 가격이 다시 폭등하고, 1950년 3월 소두 한 말 가격이 다시 이천 원대에 이른다. 이러한 쌀값 폭등→정부 개입으로 인한 일시적 안정→재급등의 과정이 반복되며 한국전쟁 발발 직전 6월에는 서울 시내의 쌀값이 한 때 삼천오백 원에까지 올랐다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⁴⁶ 이렇게 제시된 수치를 고려하면, 작품에

43 「미가 억제코자 증배」, 『동아일보』, 1948. 8. 4; 「쌀값만은 부쩍 떨어진다」, 『경향신문』, 1948. 8. 8.

44 「폭락일로」, 『조선일보』, 1948. 11. 7.

45 「천구백원으로: 도심지에서는 이천원 호가」, 『동아일보』, 1950. 1. 14.

46 정부의 식량정책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안정되지 못하여 1950년 3월 서울의 쌀값은 다시금 이천 원에 육박하게 되고(「오르락내리락 서울 쌀값 이천 원대도」, 『경향신문』, 1950. 3. 18), 4월에는 이천사백 원대까지 폭등하였다가 정부미 대량 방출로 의해 한시적으로 하

서 언급되고 있는 쌀 한 말에 ‘이천백 원’이라는 정보는 쌀값이 대체로 이천 원대에서 형성되고 있던 1950년의 쌀값 폭등 시점을 반영하고 있을 확률이 크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내용을 종합해봤을 때 『채석장의 소년』에는 두 개의 시간이 겹쳐 있다고 판단해볼 수 있다. 완식을 중심으로 한 자기증명의 서사는 단정 수립 직후라는 과거의 시간으로, 창규와 규상이들의 이야기는 1950년 초 현재의 시간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균열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그저 작품을 구성하면서 발생한 사소한 오류로 치부하는 것 대신 보도연맹 가입 후 전향 증명에의 압박과 혼란한 사회현실 아래 놓인 작가로서의 자의식이 충돌하며 만들어진 균열의 흔적으로 간주해본다면, 이는 작품의 표면에서 발화되는 이야기로부터 ‘스스로’ 거리를 두며 또 다른 목소리가 배태될 수 있는 공간으로 의미화될 수 있게 된다. 이때 이와 같은 설정을 통해 염상섭이 당시 남한사회의 사회·경제적 문제(쌀값 폭등과 빈곤)가 해소되는 방식을 그려내는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 소설 속 창규 남매가 처한 빈곤 문제는 같은 반 친구들이 모아온 쌀과 용돈을 건네며 무사히 ‘해결되는 것처럼’ 묘사된다. 규상과 친구들이 십시일반 용돈을 모으고, 도시락을 준비하며, 집에서 쌀자루를 가져와 창규를 돕는 모습은 아이들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갈등 해소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할 것이다. 아이들의 우정과 연대를 통한 (빈곤)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민족통합의 가능성을 상상하는 것은 분명 아동문학의 문법에 적합한 설정일 것이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염상섭은 평생에 걸쳐 견지해 온 ‘리얼리스트’로서의 시선을 슬며시 던져놓는 모습을 보인다. 여기서 말하는 리얼리스트로서의 자의식이란 동시대 사회현실의 문제를 직시하며 근원적

라하지만, 평균가격은 이천 원대에 형성된다(『민생문제긴급해결요망』, 『경향신문』, 1950. 4. 12; 『고대하던 비!비!』, 『경향신문』, 1950. 4. 18).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며 결국 1950년 6월에 이르러 삼천 원대를 돌파하게 된다(『쌀 폭등에 비상조치』, 『조선일보』, 1950. 6. 19).

사회구조의 탐색을 위한 시선을 마련하는 글을 써 내려간 염상섭의 태도와 연관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작품 내에서 이와 같은 아이들의 협력과 연대를 통한 문제 해결의 방식은 근본적 문제 상황이 해소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시적이라 할 수 있다. 아이들의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하는 이와 같은 해결책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그칠 뿐이다. 그런 점에서 창규 가족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구제책 혹은 이러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전망이 발견되지 못할 때, 이와 같은 문제는 언제나 다시 창규 남매에게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된다. 이런 시각 속에서 염상섭은 규상의 눈을 통해 사회문제로서의 가난에 대해 조명하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의 상황을 향해 시선을 던진다.

앞을 서서 터덜터덜 가는 창규의 발끝을 바라보며, 어제 저녁 때 업혀 올 정도로 비쓸대던 것을 생각하고는, 먹는 것이란 무언가 하고, 규상이는 놀랍게도 그 밥을 못 먹고 학교에 가는 아이가 있는 이 세상이 이상스럽게도 보였다. (강조 - 인용자, p. 118)

이 작품에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물들의 판단이나 생각이 드러나는 지점이 잘 발견되지 않는다. 중심인물이 아동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는 사회문제에 대한 진지한 탐색이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규상은 창규 남매가 이틀간이나 밥을 먹지 못했다는 사정을 듣고 난 뒤, 창규와 같은 빈곤한 타자들의 존재가 배태되고 있는 현재의 사회현실에 의문을 가지게 된 모습이다. 다만 규상의 물음은 단편적이고 이로부터 보다 심도 있는 문제의식으로 구체화되지는 못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선이 기입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에 주목한다면 작가는 작품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표면상의 주제와 교훈 너머 무언가 또 다른 문제의식을 담아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수 있게 된다. 그것

은 아동문학이라는 형식을 활용함으로써 다른 무언가를 이야기하려는 서사 전략의 측면으로 해석해보는 것이다. 표면으로 드러내는 이야기를 일종의 ‘위장적 서사’라고 한다면, 작가는 규상의 시선을 통해 표면으로 발화되지 못한 지점을 노출하여 서사의 ‘위장술’ 자체에 대해 감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할만한 단서를 좀 더 찾아보자면 그것은 완식에 게서 발견되는 조건 없는 호의에 대한 ‘강박적 거부’의 태도를 바라보는 규상의 시선이다. 완식은 이 소설에서 사회적 약자로 설정된 인물로서 완식을 위해 규상은 호의를 베푼다. 규상은 완식 가족의 어려운 사정에 마음 아파하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몰심양면으로 노력한다. 이처럼 규상이란 인물은 주변의 소외된 타자를 향해 동정심을 갖고 호의를 베푸는 이타적인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이러한 규상의 (일방적인) 호의에 대해 완식은 자존심을 세우며 이를 거부한다.

“그러지 말구, 여기 들어가 보자꾸나.”

빙수집 앞에서 규상이는 발을 멈추며 또 한번 끌어보았다.

“싫다, 너나 먹고 오렴. 난 빙수란 먹어 본 일도 없으니까.”

완식이는 이렇게 뿌리치는 소리를 하며 뒤도 아니 돌아다보니 핵핵 가 버린다. 어디까지나 끝끝하다. (p. 22)

“그래 그 애 성미가 이상스러워서 남이 주는 걸 거북해 하구, 없는 집 자식이 꽤 까다로워서, 이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남이 주는 것을 뼈죽이 입고 나서거나 신고 나서기를 싫어하는 성미라우. 마음만 해도 고맙고 무던하지! 어젠 또 참외를 사 주구 가구……. 너무 그러면 내가 되레 미안해요.” 하고 남매를 번갈아 보며 인사를 한다. (p. 89)

방 주고 세 식구 먹이는 외에, 그만큼 월급을 주마는 조건이니 이런 자리

가 또 어디 있을까마는 완식이 어머니는 덮어 놓고 도리질을 하는 완식의 의사가 감정을 무시하는 수는 없었다. 완식은 영감님 앞에서도 “난 싫어, 어머니 그만 두세요.” 하고 말리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밥에미나 남의 집 드난꾼으로 나서는 것이 어린 마음에도 창피하고, 부잣집 동무에게 얹혀 살기가 싫다는 그 자존심을 살리고도 싶은 것이다. (p. 162)

완식은 자신을 향한 상대의 호의를 결코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이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다. 이러한 완식의 태도는 작품 내에서 ‘지각이 있어 점잖고 장래성이 있는’, ‘끝끝한’ 소년의 모습으로 긍정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완식의 유난스러울 정도로 높은 자존심은 한편으로 주체의 자기검열적인 강박의 문제로도 해석 가능하다는 점에서 눈여겨봐야 한다. 동정과 호의를 ‘비대칭적’ 호혜관계로 간주하여 그것이 사회적 타자(약자)에게 주어지는 ‘특수한 배려’로 해석할 수 있다면, 완식은 자신에게 주어진 호의를 일종의 ‘차별과 배제’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자존심을 굽히지 않은 채 호의를 거절하는 완식의 모습은 (차별의 대타향으로서) ‘평등’한 존재, 체제 내의 동등한 일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자존심 센 모습과 조건 없는 호의를 거절하는 태도는 완식이 가지고 있는 ‘원칙주의자’로서의 마음가짐과도 연결된다.

규상이도 자리가 없다는 데야 더 말이 아니 나왔다. 그러나 부잣집 아이라면야, 그리고 제가 이 학교에 전학할 때처럼 기부금을 넉넉히 내면야, 자리를 비집지 못할 것도 아니겠지 하는 생각을 하여 보니, 대관절 돈이란 무엇인가? 하고 돈이 좋기도 하고 더럽다는 생각도 든다.

“형편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내라니, 공평이 지나쳐서 도리어 불공평하지 않은가? 더구나 의무교육이 된다면서……”

규상이는 이런 불평도 혼자 생각하다가 저번에 완식이야, “그건 규칙인

데……나 앓을 책상 값은 해 들어 놓아야지.” 어찌고 하던 말이 머리에 떠오르자, 아무 불평도 말하지 않는 완식이, 자기보다는 더 소견이 있고 마음이 바른 아이라고 다시금 탄복하는 것이었다. (강조 - 인용자, pp. 81-82)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처지나 상황에 불평하지 않고 남들과 똑같이 ‘평등한 대우’를 받길 주장하는 완식의 모습은 자립적, 주체적 모습으로 긍정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것은 국가가 요구하는 이상적 국민으로서의 자질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규상은 그와 같은 완식의 성품에 대해 탄복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의아함을 느끼는 모습이 묘사된다. 여기서 규상이 느낀 의아함은 완식에게 무의식적으로 내면화되어 있는 경계 내부를 향한 귀속 욕망(강박)의 문제와 연결된다. 규상의 지적과 같이 오히려 “공평이 지나쳐 도리어 불공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완식은 이에 대한 어떠한 저항 없이 불공평한 상황 자체를 수용하고 있다. 완식으로 상징되는 사회적 약자들이 이러한 태도를 무비판적으로 내면화시키게 될 때의 가장 큰 문제는 구조화된 모순과 부조리함이 가려지고 모든 책임이 ‘약자로서의 개인’에게 전가되어버림으로써 근본적인 사회구조적 해결책을 찾아내는 시도가 억압되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이다. 완식에게는 자신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만들어내는 모순된 사회구조의 근원적 문제를 탐색하고 비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에게 시급한 과제는 하루빨리 경계의 밖에서 안으로 진입하여 ‘국민’으로의 인정과 통합을 보장받는 데에 있다. 그렇기에 완식의 서사를 통해서만 개인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될 뿐, 사회현실의 모순된 구조를 향한 시선을 마련하거나 혹은 또 다른 사회적 타자들의 이야기와 공명함으로써 이를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확대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다.

따라서 규상의 시선을 통해 완식의 자기증명(혹은 통합)에의 강박이 지적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그렇다면 완식의 이야기를 통해 형상화되는 것이라 여겨지는 ‘국민-되기’의 서사가 과연 ‘진정성’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재질문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해보자

면, 규상이라는 인물로부터 파생되는 서사와 그의 시선은 견고하게 쌓아 올려진 '것처럼 보이는' 소설의 표면적 이야기에 균열을 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본다면, 『채석장의 소년』을 단순히 교훈적 서사를 담은 '아동문학', 혹은 검열의 시선 아래 제출된 '수동적 자기증명의 서사'로만 읽어나가는 것은 이 소설에 담긴 염상섭의 또 다른 시선을 놓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주체가 통합에의 강박을 내면화하게끔 강제하는 시대현실을 향한 비판적 시선이다. 다만 이 같은 염상섭의 문제의식은 현실의 폭압 앞에 비록 위장적 서사의 방식으로, 혹은 균열된 목소리로 드러나고 있지만, 그것이 위태로운 모습으로나마 결코 포기되지 않은 채 감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역설적으로 『채석장의 소년』은 상당히 입체적인 텍스트라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5. 리얼리스트와 알레고리, 변형태로서의 『채석장의 소년』

염상섭은 평생에 걸쳐 당대적 문제에 천착하여 시대 현실의 모습을 포착하고, 작품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관계적으로 파악하는 모습을 견지했다는 점에서 철저한 리얼리스트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염상섭이 지니고 있던 작가로서의 자의식과 신문기자로서 활동했던 경험으로부터 마련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는 사회현실의 문제를 소설로 형상화하는 데 있어 작가로서의 엄정한 태도를 강조하였고 이를 통해 작품 속에 형상화된 현실은 동시대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최근 발굴된 '아동문학' 『채석장의 소년』은 염상섭의 문학 계보에 있어 상당히 이질적이고 어색한 존재로 받아들여진다. 이 문제적 작품의 존재의미를 해명하는 일은 많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이 소설

이 염상섭의 나머지 작품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계끔 만든다. 한평생 리얼리스트로서의 시각을 견지했던 염상섭은 왜 1950년의 시점에서 아동문학을 발표하게 된 것인가. 본고는 이러한 질문으로부터 출발하여 『채석장의 소년』이 염상섭 문학세계 있어 단순히 예외적인 아동문학 작품으로만 규정되어야 하는지, 그것이 아니라면 이 작품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담긴 작가 염상섭의 목소리는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해명하는 작업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작품이 발표된 시기를 전후한 남한 사회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1948년 남한 단독정부 수립 후 이승만 정권은 반공주의를 수단으로 삼아 남한 사회에 존재하고 있던 ‘우익이 아닌’ 모든 정치이념과 사상들, 즉 중도파부터 (극)좌익 세력까지의 모든 이념적 경향을 반국가적(혹은 반민족적)이라 규정한다.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국가보안법 제정(1948)과 국민보도연맹의 결성(1949)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남한사회의 반공이데올로기가 더욱 강조된다. 보도연맹은 좌익분자의 (자발적)전향과 포섭을 통한 좌익세력의 색출을 목표로 하였고, 보도연맹 결성 이후 약 1년 동안 30여만 명의 가입이 (강제적으로) 이뤄졌다. 이런 상황에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며 남북협상을 지지하고 통일된 민족국가 수립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았던 ‘중도파’ 염상섭 역시 반공권력의 전향의 강제와 폭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지난날의 ‘과오’로부터 완전히 절연했음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염상섭이 기존과 같은 소설문법을 통한 소설 쓰기 대신 아동문학의 알레고리적 형식을 취한 것은 견고한 반공권력의 감시 아래 자신의 글쓰기를 이어나갈 수 있는 하나의 유용한 도구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채석장의 소년』의 표면에서 발화되고 있는 전재민 소년의 ‘국민-되기의 서사와 ‘연대와 통합의 가능성’이란 주제의식은 아동문학의 알레고리적 장치 통해 효과적으로 ‘전시’될 수 있게 된다. 전재민 소년의 학교 입학(복학)이라는 중심 서사를 통해 국민-되기의 당위성을 증명하고, 연대와

화합을 통한 민족통합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뚜렷한’ 주제의식이 작품 전면에 드러나는 것이다. 알레고리란 무언가를 말하면서 그것 외의 다른 어떤 것을 말하게 하는 것이며, 그런 점에서 작품에 이중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채석장의 소년』을 이와 같은 알레고리적 작품으로 간주한다면, 작품 속 완식과 친구들의 이야기 ‘너머’ 무언가 다른 것을 말하고자 하는 작가의 목소리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둘 때, 완식의 서사를 통해 형상화되는 ‘국민-되기’의 열망은 작가가 처한 자기증명의 압박을 다루고 있는 장면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완식의 서사와 관련하여 작품의 시간적 배경이 1948년 단정 수립 직후의 시간으로 설정된 것은, 보도연맹 가입 후 전향증명의 문제에 마주한 염상섭에게 1948년 단정 수립의 시간이란 반드시 되찾아야 하는, ‘강요된 기원’으로서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재민 소년 완식에게서 발견되는 학교 입학(복학)의 열망은 ‘국민-되기’를 증명함으로써 무사히 체제 내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압박이 형상화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긴다.

그런데 이러한 분석에 있어 중요한 것은 염상섭이 이러한 알레고리적 장치를 활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작중의 또 다른 주요 인물(규상)과 그의 시선을 통해 이러한 자기증명의 서사에 내포된 강박적 태도와 통합에의 욕망을 다시 짚어냄으로써 중심서사에 ‘균열’을 가하는 전략을 취하는 모습이다. 규상의 서사와 관련된 작품의 시간적 배경은 완식의 서사에서의 그것과 달리 1950년 현재로 설정됨에 따라 소설에 두 개의 시간이 존재하게 되는 구성상의 균열이 발생하는데, 이는 전향 증명의 압박과 작가로서의 자의식 사이에서 고뇌하던 염상섭이 선택한 서사적 전략이라 볼 수 있다. 규상의 눈을 통해 목격된 완식의 호의에 대한 강박적 거부와 (원칙주의자로서의) 자존심 강한 모습은 사실상 포섭/배제에의 감각으로부터 파생된 태도이며, 그것이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모순과 부조리함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개인(약자)의 책임으로 전가되어버린 상황에 대한 지적이다. 그런 점에서 소설

의 표면상의 주제, 즉 ‘협력과 연대에 기반한 공동체의 통합’ 및 이를 통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찾는 것이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를 질문하는 시선이 작품 내에 마련되는 것이다.

『채석장의 소년』은 기존 염상섭의 작품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작품 구성 방식 및 소설작법의 방식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전향 증명에의 압박과 감시의 시선 속에서도 소설 쓰기를 포기할 수 없었던 염상섭의 작가의식의 한 부분을 반영하여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949년 9월 염상섭은 ‘후배에게 주는 글’이라는 기획의 일환으로 『민성』에 「불능매문위활」(不能賣文爲活)이란 글을 발표한다. 염상섭은 후배 문인들이 가져야 할 문인의 태도와 역할 등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글의 마무리에 이르러 그는 “이 시대와 같은 발전과정에서 문학을 한다는 것은 그 초기에서와 같이 의연히 일종의 순교자적 열정을 가져야 할 것”이라 강조한다.⁴⁷ 후배들에게 건네는 문단 선배의 조언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어쩐지 그것은 염상섭이 자기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 같이 느껴지기도 한다. 시대현실의 부조리함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 쓰기를 포기할 수 없었던 작가 염상섭은 그러한 시간을 견디며 ‘순교자적 열정’으로 소설을 써내려가야 함을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모습들을 함께 염두에 두고 이 작품을 다시 읽어본다면, 『채석장의 소년』은 전향 증명에의 상황에 놓인 염상섭이 그저 ‘아동문학’의 형식을 통해 제출한 수동적 자기증명의 서사, 혹은 염상섭의 다른 (아동소설과 상대되는 의미에서의) ‘소설’과 비교하여 수준 낮은 미달태로서의 작품이 아니라 작가 염상섭에 의해 선택된 소설 쓰기의 한 변형태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47 염상섭, 「불능매문위활(不能賣文爲活)」, 『민성』, 1949. 9; 한기형·이혜명(2014), 『염상섭 문장 전집 3』, 소명출판, pp. 152-155.

참고문헌

자료

- 염상섭(2015), 『채석장의 소년』, 글누림.
 한기형·이혜령(2014), 『염상섭 문장 전집 3』, 소명출판.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외

논저

- 강성현(2004), 「전향에서 감시·동원, 그리고 학살로: 국민보도연맹 조직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14, 역사학연구소, pp. 55-106.
 공종구(2017), 「염상섭의 『채석장의 소년』론」, 『현대소설연구』 65, 한국현대소설학회, pp. 129-154.
 김승민(2007), 「해방 직후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만주 체험의 의미」, 『한국근대문학연구』 8, 한국근대문학학회, pp. 243-274.
 김영경(2016), 「단정 이후 염상섭의 정치의식과 미완의 서사」, 『현대소설연구』 64, 한국현대소설학회, pp. 175-203.
 김윤식(1987), 『염상섭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김재용(2015a), 「냉전적 반공주의 하에서의 민족적 통합 및 민주주의에 열망: 새로 발굴된 『채석장의 소년』을 중심으로」, 『채석장의 소년』, 글누림, pp. 175-195.
 김재용(2015b), 「해방 직후 염상섭과 만주 재현의 정치학」, 『한민족문화연구』 50, 한민족문화학회, pp. 69-92.
 남찬섭(2021), 「해방 후 주택문제와 ‘적산요정’ 개방운동」, 『월간 한국노총』 571, 한국노총조합총연맹, pp. 38-39.
 류진희(2009), 「염상섭의 『해방의 아들』과 해방기 민족서사의 젠더」, 『상허학보』 27, 상허학회, pp. 161-190.
 박성태(2021), 「단정 수립 이후 염상섭 문학의 중도적 정치성 연구(1948~1950): 민족통합과 친일과 청산 문제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83, 한국현대소설학회, 2021, pp. 312-340.
 박정선(2020), 「반공국가의 폭력과 ‘좌익작가’의 전향」, 『現代文學理論研究』 83, 현대문학이론학회, pp. 145-184.
 안서현(2013), 「『曉風』이 불지 않는 곳: 염상섭의 『無風帶』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39, 한국현대문학학회, pp. 157-183.
 이봉범(2008), 「근대지식으로서의 사회주의와 그 문화, 문화적 표상: 단정수립 후 전향(轉向)의 문화사적 연구」, 『大東文化研究』 64,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pp. 215-254.
 이연식(2013), 「해방 직후 서울 소재 ‘적산요정’ 개방운동의 원인과 전개과정」, 『郷土서

울』 84, 서울역사편찬원, pp. 203-242.

이종호(2019), 「해방기 염상섭과 『경향신문』」, 『구보학보』 21, 구보학회, pp. 315-351.

정호웅(2019), 「해방 후 소설과 ‘소년의 행로’」, 『구보학보』 22, 구보학회, pp. 507-533.

원고 접수일: 2022년 1월 11일, 심사 완료일: 2022년 1월 23일, 게재 확정일: 2022년 2월 8일

ABSTRACT

Discovery of ‘So-nyeon (少年)’ and Narrative of ‘Becoming a Nation’ on Display

Kim, Hee Kyung*

This paper aims to examine works of Yeom Sang-seop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more broadly, and the analytical object of this paper is Yeom Sang-seop's *Chaeseogjang-ui Sonyeon* (A Boy of the Quarry) that was recently discovered. This work differs from other works by Yeom Sang-seop in that it takes the form of children's literature. However, this should be considered along with the socio-cultural aspect of forced conversion through the formation of anti-communism and the formation of the National Guidance Allian in South Korean society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separate government. Yeom Sang-seop opposed the establishment of independence government, supported South and North negotiation, and did not give up the possibility of the unified nation-state. Howev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as eventually established on August 15, 1948 and using anti-communism as a means, Rhee Syng Man regime solidifies its system by defining “non-right” political ideologies and ideas of South Korean society as anti-national. Rhee Syng Man regime intends to forcibly embrace and convert “seditious groups” (the moderate and the left-wing) of South Korean society,

* Ph.D. Candidate, Departme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rough enacting the National Security Law (1948), strengthening anti-communism ideology, and forming the National Guidance Alliance (1949). In the process, numerous intellectuals joined the National Guidance Alliance, and Yeom Sang-seop couldn't avoid joining either. Considering this situation, Yeom Sang-seop chose the form of an allegory in children's literature instead of choosing to write novels through novel grammar same as before. This can be judged as a way to continue to write novels under the surveillance of anti-communist government. The narrative of 'becoming a Nation' of war refugees, which is being uttered on the surface of *Chaeseogjang-ui Sonyeon*, and the theme of 'integration of community based on cooperation and solidarity' accompanying it can be effectively "displayed" through the form of children's literature.

Keywords National Guidance Allian, Conversion, Nation, Self Verification, Obsession, Allegory, Camouflaged Narrative